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확산 총력 찾아가는 읍·면 순회 설명회

장수군, 안전한 국산김치 소비촉진 위해 12월까지 35% 인증 목표 추진

장수군이 위생 논란이 있는 중국김치로부터 군민들을 지키기 위해 '국산김치 자율표시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국산김치 자율표시제는 최근 중국산 김치의 '알몸 절임' 영상 등 수입산 김치의 위생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산 원료 95~100%로 만든 김치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외식·급식업소를 국산김치 자율표시 업소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자율표시 업소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약품협회, 대한민국의약품협회,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산업협회 5개 단체가 참여하는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에서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기간은 1년이다.

이 제도가 확산되면 해당 음식점의 국내산 김치 사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김치를 먹을 수 있어 신뢰 제고 및 국내산 김치 소비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수군에 따르면 인증확산을 위해 관내 342개소의 일반음식점(316개소)과 집단급식소(26개소) 및 관련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해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신청을 유도할 계



18일 장수군 한 음식점에서 군청 식품진흥팀이 국산김치자율표시제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획이다.

특히 8월에 관내 주요 음식점을 대상으로 '국산김치 자율표시제'를 집중 홍보하고, 12월까지 관내 120개소(전체 대상업소의 35%) 인증을 목표로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자율표시 업소로 지정되길 희망하는 외식·급식 업소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대한민국의약품협회 홈페이지(<http://kim>

chikorea.org/)에서 서식을 다운 받아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근동 농축산유통과장은 "국산김치 자율표시제는 군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최근 국산김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홍보해 자율표시 업소가 정착 및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군, 농촌협약·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등 의견 청취

무주군이 올해 각종 농촌관련 사업 추진과정에서 정보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찾아가는 읍·면 순회 설명회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오는 27일까지 무주군(농촌활력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협약 사업과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농촌 중심지 활성화, 도시 재생 사업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있다. 사업 안개와 의견을 수렴해 주민 친화형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취지다.

읍·면 순회 설명회에서는 무주군의 농촌 관련 주요 사업에 대한 취지와 목적, 향후 세부계획을 홍보함으로써 군민과 소통하는 공감행정을 만들기 위해 추진된다. 각 읍·면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진행되며, 지역주민과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 중이다.

읍·면 순회 설명회는 9일 무풍면,

10일 적상면에서 진행됐으며, 23일 무주읍, 25일 안성면, 26일 부남면, 27일 설천면에서 순차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향후 무주군에서 진행될 농촌협약과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통해 무주군 일자리창출과 특화산업 육성은 물론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지역 조성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으로 무주군의 지립적 기반을 구축해 군민이 행복한 정주환경 재건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활력과 이종현 과장은 "무주군은 침체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다양한 농촌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찾아가는 읍·면 순회 설명회를 통해 군민들과 소통하고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사전 회의 개최

무주군이 지난 17일 군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사전회의를 개최하고 안전사고 없는 무주군 건설에 총력을 쏟고 있다.

김희옥 부군수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는 행정안전부의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8월23일부터 9월 17일까지 26일간 진행되는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을 사전 점검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날 회의를 통해 최근 사고 발생시설, 30년 이상 된 노후시설과 같은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시설 중심의 153개소에 대해 내실 있는 점검을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안전점검 민관합동 기동반'은 건축·전기·가스·소방 등의 전문가로 10명으로 구성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처음으로 육

안 점검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하천 등과 같은 재해취약시설 점검을 위해 드론 등과 같은 첨단장비를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에 군민들의 자율점검 참여를 위해 유관기관, 민간단체, 학교 등에 자율점검표를 제작·배포 계획도 점검했다.

김희옥 무주군 부군수는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고 군민들의 자율점검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군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일상생활 속 방치되어 있는 각종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세월호 참사 이후 2015년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매년 시행되고 있었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잠정 연기되어 왔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군 청소년안전지킴이 인증프로그램 실시

장수군청소년문화의집이 작년 이어 올해도 청소년안전지킴이 인증프로그램을 관내 중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시행하는 것으로 청소년이 안전하고 유익한 청소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 지방단체 또는 개인·법인 등이 실시하는 청소년 활동을 일정 기준에 따라 심사해 자격을 부여하는 국가 인증제도다.

이 인증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장소에 상관없이 활동에 참여한 기록을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청소년에서 실시간 발급 가능)하며, 참여소감, 사진 등을 첨부해 포트폴리오를 스스로 작성할 수 있다.

이번 청소년안전지킴이 프로그램은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와 연계해 만든 프로그램으로 실제 화재상황을 재현한 소화기 시뮬레이터 실습, 가상현실(VR) 기기를 활용해 화재·선박 재난상황별 대피방법, 미세김을 활용하는 실습 위주의 CPR 응급처치 등 실감 나는 체험 등으로 4시간 동안 진행됐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 중간 보고회

진안군은 18일 군청 상황실에서 제3단계 금강·섬진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이행평가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용역 보고회는 전춘성 군수를 비롯해 국장 및 관련 실·과·소장 등이 참석해 제3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최종년도인 2020년 이행사항을 평가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안군은 지속적인 가축사육두수 증가로 오염 부하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안정적인 수질오염 총량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삭감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해 축사매입,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 고체연료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어 이후 수질 개선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가을감자 농작물 재해보험 신청하세요"

20일~9월 30일까지 접수

진안군은 18일 오는 20일~9월 30일까지 가을감자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 신청 기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예측하기 곤란한

기상현황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영농활동 보장과 농가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농가소득의 안정화를 위해 보험료를 최대 95%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가을감자 농작물 재해보험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인근 농협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농업용시설 및 시설작물, 버섯

재배사 및 버섯작물 보험 품목은 오는 11월까지 관내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작물별로 연중 개시일을 정해 신청을 받고 있으며, 농작물은 농·축협 및 인삼은 전북인삼농협에서 보험 가입 접수를 받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2020년 기준 무주군 농업실태조사 실시

무주군은 19일부터 오는 9월 9일까지(준비조사 8.19.~20. / 본조사 8.23.~9.9.) 2020년 기준 무주군 농업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기후변화, 농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한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농가 소득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농업실태조사 대상은 조사 기준일(2020.12.31.) 현재 무주군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중 표본 추출 방법(층화계통추출법)을 통해 선정된 1,008명으로, 24명의 조사원이 직접 현장 방문 및 전화를 통해 ▲경지면적과 작물별 재배면적 등 기본사항 7개, ▲작물별 수확량·판매금액 등 소득지출 및 지출 부문 4개, ▲작물별 출하

처 등 농업일반 부문 13개, ▲농업 활성화 정책, 농업 지원 사업 만족도 등 무주군 자율 항목 6개 등 총 4개 부문 30개 항목을 조사할 예정이다.

원활한 조사를 위해 지난 18일에는 군청 전통문화의 집 대강당에서 조사관리자 및 조사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호남통계청에서 맡아 진행했으며 조사목적과 조사방법, 조사지 작성 및 입력, 보고서 작성 등의 내용을 공유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